

21세기 주거문화의 흐름

곽 인 숙 (우석대학교 이공대학 의상주택학부 주택전공)

1. 21세기는 과연 새로운 세기의 시작인가?

미래학자들은 21세기를 과학의 발달로 인류에게 풍요와 안락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낙관적으로 보는 견해와 함께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견해도 있다. 낙관적인 견해에서는 과학의 발달 덕분에 인간이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로봇 기술이 발달해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적인 노동으로부터 해방되며, 식량과 자원 부족이 해결되고 환경오염도 상당히 해결되리라고 기대한다. 그러나 비관적인 견해에서는 컴퓨터와 전자통신 기술이 빠르게 발달해 21세기의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해지고 풍요로워지겠지만, 모든 정보가 한 국가나 개인에게 집중되어 독재나 극소수 지배의 독재 사회가 초래될지도 모른다는 우울한 전망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앨빈 토플러, 피터 드러커, 다니엘 벨, 단 탭스캇 과 같은 미래학자들의 공통점은 21세기는 과학의 세기가 될 것이며, 따라서 21세기를 정보화사회, 디지털경제사회, 지식기반경제사회 등이라고 부르며, 새로운 단계의 과학발전에 따라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현재의 로봇의 기원이 되는 자동기계는 스프링의 힘으로 작동되는 기계 시계였다. 18세기 유럽에서는 매 시간 감추어진 동물이나 사람의 인형이 문을 열고 나타나서 정교한 동작의 몸짓으로 시간을 알려주는 시계가 대유행을 했다. 오늘날 로봇을 만드는 기술은 컴퓨터 기술과 기계공학 기술의 이상적인 결합이다. 앞으로 과학기술의 진전으로 일상 업무는 모두 로봇이 담당하고, 전문직도 전문 분야에 맞게 프로그램된 로봇이 대신하게 되어 인류는 노동에서 해방될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로봇에게 자신의 일을 넘겨준 인간은 과연 행복해질 것인가?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았던 것처럼 로봇이 인류를 지배하게 되지는 않을까? 로봇이 인류의 후손으로서 이 지구를 물려받게 되리라는 미래학자 마빈 민스키의 예측은 우리를 다소 불안하게 한다(홍옥희, 1999). 또는 극심한 환경오염이나 핵무기의 발달로 폐허와 다름없는 도시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도 예측한다. 이는 영화 블레이드 러너의 배경이 된 로스엔젤레스를 생각하면 될 것이다. 3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방사능과 공기오염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다른 행성으로 옮겨갔지만 아직 로스엔젤레스에는

세계도처에서 모여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 600층이나 되는 피라미드모양의 초고층건축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고 살고있는 지배자들과 이주해버린 중산층시민들이 살다 떠나간 폐허와 햇볕도 없는 지상에서 산성비가 질척거리는 음습한 골목에 모여 사는(그리고 끊임없이 무장경찰차와 헬리콥터로 감시 받으며 살아가는)노동자계층과 범죄자들의 거대도시-2019년의 로스웰젤리스(김성원, 2001). 터미네이터2의 첫 장면인 핵전쟁으로 폐허가 된 불에 타는 놀이터의 모습을 통해 '제임스 카메론' 감독이 말하려고 했던 바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밝은 미래가 아닌 윤리 의식을 간과한 과학 기술로 인한 잿빛 미래에 대한 경고 메시지이다

생물학이나 생명공학 연구자들은 그들의 연구가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과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유전질환 대부분을 예방·치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전공학 기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데에는 개인의 윤리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윤리적인 차원에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이미 부족한 상황인 지구의 자연자원을 더 빠르게 고갈시킬 것이다.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드는 경제적 부담으로 세대간·국가간 알력이 심해질 것이며, 지식이나 정보의 편중화와 마찬가지로 의료 서비스도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구분될수도 있다(홍옥희,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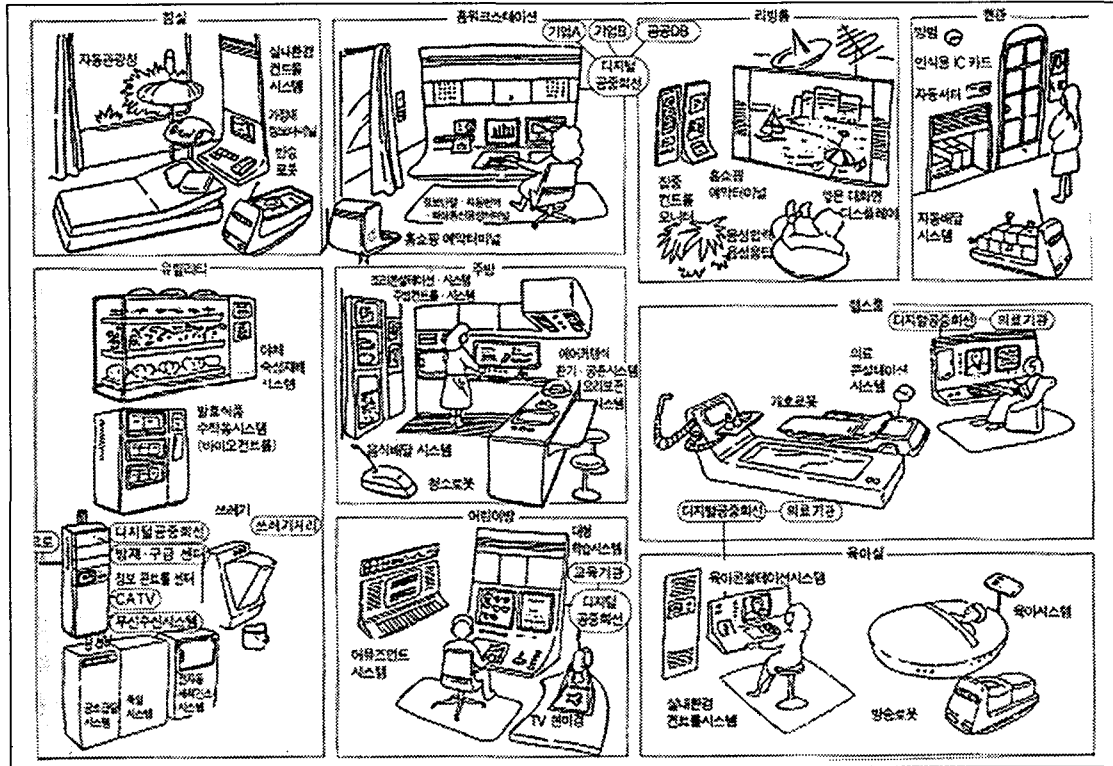
그러나 이미 과학기술의 발달로 일상생활에서 많은 영역이 인공 통제되고,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여러 설비와 기기들이 발명되어 우리의 생활속에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된 환경속에서 우리는 어떤 생활을 하게 될 것이며, 어떤 주거공간에서 생활하게 될 것인지 현재 진행중인 세계의 주거문화의 변화된 흐름을 통해 우리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1) 과학기술의 발달과 주거공간의 변화

20세기 후반의 과학 기술의 눈부신 발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은 모든 면에서 크게 변화했다. 생활환경이나 생활양식도 변화하였으며, 앞으로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간의 생활도 더욱 변화되어 갈 것이다. 하이테크 기술을 구사하는 기기가 보급되고, 인공에너지에 의해 이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다.

기술의 변화는 주거공간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각종 기술의 주택내 유입은 물론 기술이 적용되어질 수 있는 경제적, 문화적 조건 등을 필요로 하지만, 일단 유입된 기술은 주거공간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주거에 대한 가치관이나 생활양식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기술의 변화와 주거공간의 변화를 고기능화 또는 첨단화, 부품화나 조립화, 인간화나 간편화의 측면으로 예측하고 있다(<http://arch.hannam.ac.kr/~kih/week7.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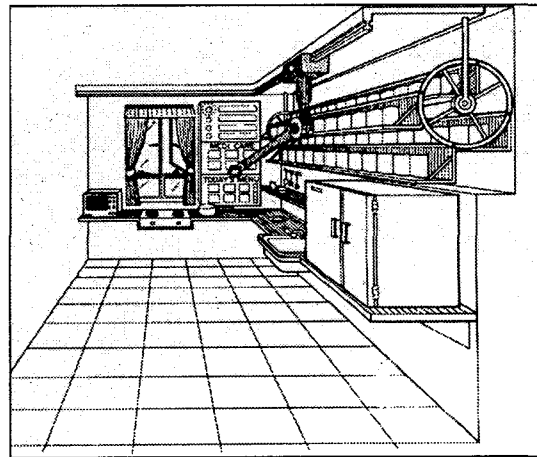
<그림 1>은 주택내에 각종 정보 시스템의 유입 예상도로 이러한 정보통신의 발전으로 주택내에서 빠르고 많은 정보를 얻고, 홈뱅킹, 우편정보송수신, 문화생활, 교육, 오락, 재택근무 등의 일이



〈그림 1〉 주택내 각종 정보 시스템의 유입 예상도(김성완, 1997)



〈그림 2〉 어린이에게 안전한 부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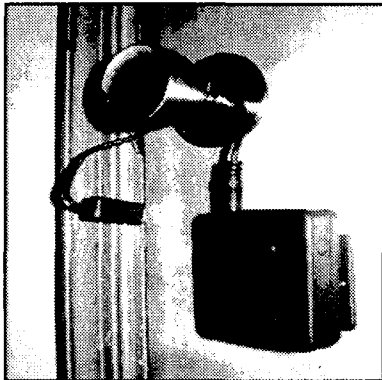
〈그림 3〉 완전 기계화된 부엌

출처 : "Smart House: The Coming Revolution in Housing" (Smith, Ralph Lee, 1988)
 G.P. Publishing, Columbia, Maryland, US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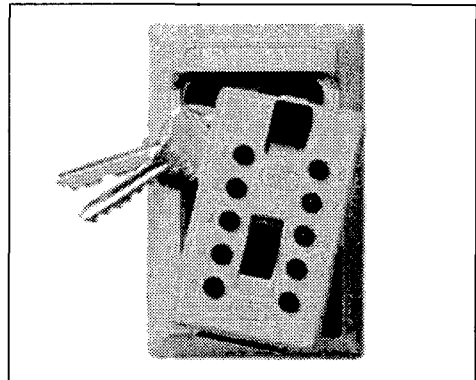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김성완, 1997).

<그림 2>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공지능에 의해 접근이 통제되는 부엌설비로 어린이나 사용이 우려되는 노인에게 적용되어 질 수 있다. <그림 3>은 부엌 로봇으로 프로그램된 메뉴에 따라 가족의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완전 기계화된 부엌으로 아직은 일상생활에 적용되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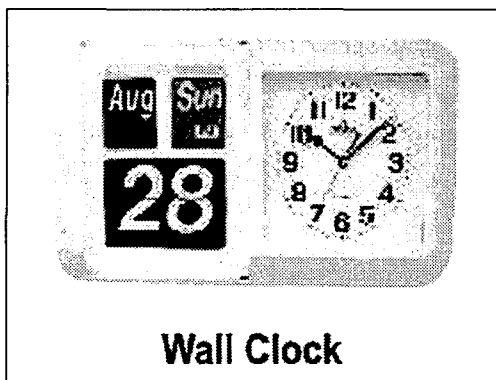
특히 개인을 둘러싼 미세환경에는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확장시켜줄 수 있도록 고안된 많은 지원기술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허약하거나 기능의 손상이 있는 장애인이나 노인의 경우 활동보조기구, 모니터기구, 안전기구, 의사소통의 도움수단, 의료적인 기구와 설비, 치료기술 등을 통해 일상생활의 다양한 활동에서 도움을 받고 있다(Cluff, 1991). 다음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알츠하이머나 치매 환자를 위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지원해주는 도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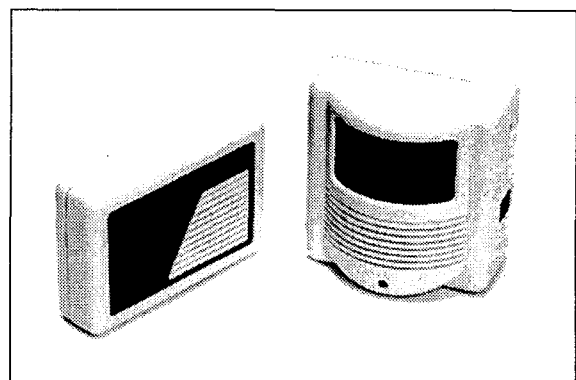
<그림 4> 출입문 경보장치(치매노인들이 배회시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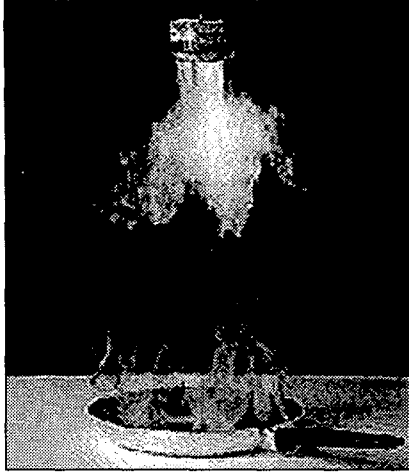
<그림 5> 출입문 열쇠 숨김장치



<그림 6> 노인이 쉽게 보고 읽을수 있는 시계
(월, 일, 요일,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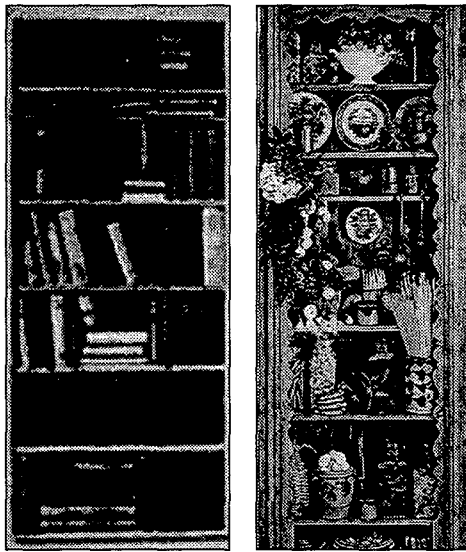
<그림 7> 노인의 행동을 감지하고 알려주는 경보장치
Motion Detector & Remote Alarm



<그림 8> 조리기구의 과일시 자동소화장치



<그림 9> 노인이 넘어지거나 추락하는 것을 알려주는 경보장치



<그림 10> 출입문 가리게 벽지

2)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주거에 대한 관심

과학기술 특히 의료기술의 발달로 거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거나 인공장기로 대체되면서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어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세계 인구의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 조만간 경제성장률, 저축률, 노동시장 등 인류의 생활 양식에 큰 변화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엔 인구국은 노령화 관련 보고서에서 현재 10명당 1명꼴인 60세 이상 노인이 2050년에는 5명당 1명꼴인 20억명으로 늘어나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인구가 어린이(15세 이하)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또 현재 80세 이상 연령대가 60세 이상 노인의 12%를 차지할 정도로 급속히 초노령화 현상이 진행되면서 급세

기 중반이면 100세 이상 노인이 현재의 15배인 320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다음 세기 중반인 2150년 쯤에는 60세 이상 노인이 세계 인구의 35%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셉 차미 유엔 인구국장은 “이는 인류 역사상 전례없는 일로 20세기 이전까지는 이같은 현상을 상상도 못했다”며 “인구 노령화는 지역과 인종을 초월해 전 세계 모든 국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차미 국장은 출산율과 사망률의 급격한 감소가 노령화의 주된 이유라고 설명하고 현재 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핵가족 형태가 이같은 노령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

라고 덧붙였다(국민일보, 2002. 03. 01).

〈표 1〉은 각국의 고령화사회(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 고령사회(14%이상), 초고령사회(21%이상)에 도달하는 연도를 추정한 것으로 일본,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스웨덴 등이 이미 고령사회에 도달했고, 미국은 2013년, 한국은 2022년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든 유럽의 각국은 노인주거에 대한 대안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어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모두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평생을 위한 디자인 또는 보편적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강조하고 있다. 보편적 디자인은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건축요소들이 융통성있게 다양한 장애 종류와 장애 정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비용이 저렴하여 누구나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 하며, 아름다운 외관을 지녀야 한다. 예를 들면 젖어도 잘 미끄러지지 않는 바닥 재료로 마감한 화장실과 욕조, 또는 휠체어가 다닐수 있는 폭을 가진 출입구와 통로 등을 공공건물과 일반 주택에 적용한 것이다(주거학연구회, 1999).

미국의 노인복지행정체제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역단위 행정기구 및 민간단체로 이어지는 서비스망(aging network)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연방정부는 큰 테두리의 정책방향의 설정과 관련법규의 제정, 그리고 지방정부에서 행하는 노인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주정부 또는 지역단위 행정기구는 연방정부의 방침에 의한 사업과 병행해서 해당지역의 특수사정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는 등 융통성있는 복지행정을 펴나간다. 그러므로 미국은 지역에 따라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형태나 내용이 각기 다를 경우도 적지 않다. 또한 미국에서는 노인복지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민간단체 또는 민간기업이 수행하는 역할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특징이 있다. 건강한 노인들을 위한 주거시설인 노인전용아파트 또는 노인촌락(Retirement Community)의 운영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주거시설은 고령자들의 생활에는

〈표 1〉 인구 고령화 국제 비교

| | 도달년도 | | |
|-----|------|------|------|
| | 7% | 14% | 20% |
| 한 국 | 2000 | 2022 | 2032 |
| 일 본 | 1970 | 1994 | 2006 |
| 프랑스 | 1864 | 1979 | 2020 |
| 독 일 | 1932 | 1972 | 2012 |
| 영 국 | 1929 | 1976 | 2021 |
| 이태리 | 1927 | 1988 | 2007 |
| 미 국 | 1942 | 2013 | 2028 |
| 스웨덴 | 1887 | 1972 | 2012 |

자료 : UN, 『The Sex and Age Distribution of World Population』, 1999

없어서는 안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노인층락의 규모는 대체로 5백세대에서 1천세대, 그리고 큰 규모의 것은 5만세대가 넘는 것도 있다. 현재 미국에는 5백세대 이상되는 노인층락만도 3천여개소에 달한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9).

노인층락에는 노인들이 생활하기에 편리하도록 각종 편의시설, 의료시설, 가사조력서비스 시스템 등이 구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택내의 설비도 노인들의 신체적 조건을 감안하여 설계되었기 때문에 사회에서 은퇴한 노인들에게는 안성맞춤의 생활의 터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부모가 자력으로 생계를 꾸려나갈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노쇠현상이 심화되었을 때는 자식들 중 하나가 그 부모를 자기집 근처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하루에 한두번씩 그곳에 들러 가사일을 돌보아드리는 경우는 있지만 와상상태에 놓여있는 부모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그 시중을 들어준다는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만성질환상태에 놓여있거나 평상시에도 누군가로부터 신체적 도움을 받아야 한다거나 하는 노인의 경우는 요양시설(nursing home) 또는 병원의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래서 건강이 좋지 못한 노인들 중에는 병원보다는 경비가 덜 드는 요양시설 쪽을 택한다. 요양시설에는 의사는 상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문간호사(skilled nurse)가 담당의사와 수시로 상의하며 고도의 의료행위를 하고 있어 해당노인들로서는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것과 동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쇠현상이 심한 노인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재가에서 생활하면 몸시중과 세탁, 취사 등을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에는 약2만4천개소의 노인요양시설이 있고, 이러한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들은 합계 1백6십만명을 상회한다.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노인요양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보건의료 및 간병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은 연간 3백억 달러를 상회한다. 미국에서도 신체적으로 자립생활이 불가능한 노인들을 보살피는 일은 자녀들의 몫이다. 이 나라의 젊은이들 중에는 한주간에 한번씩 별거하는 부모를 찾아가서 가사일 시중을 들어주기도 하고, 일용품이나 식품을 마련해 드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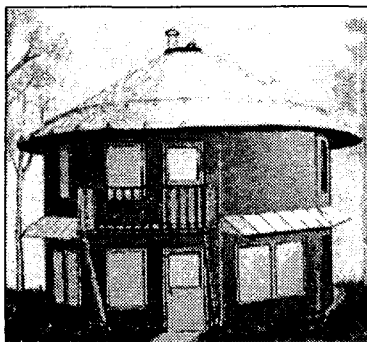
핵가족화의 심화 또는 부부맞벌이 사회로 전환하고 있어 자녀들이 부모의 시중을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에 자녀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부모를 보살피주는 효도대행서비스업이 날이 갈수록 조직적으로 확산되어 나가고 있다. 부모를 돌보아주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자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효도대행서비스업 중에는 고령후기 노인들을 대상으로 음식조리, 세탁, 청소, 시장보기 등의 잔심부름이 있는가 하면, 건강이 매우 좋지 못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몸수발을 들어주는 일에 이르기까지 그 영역은 매우 광범위하다. 이러한 사업체는 노인 당사자 또는 그 자녀들이 언제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비상벨 또는 전화로 호출만 하면 즉시 달려갈 수 있도록 24시간 대기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녀들과 별거하거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노인들도 효도대행서비스업체와 연계를 맺어두면 안심하고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자료실, 2001).

3) 생태환경에 대한 관심증가로 생태주택의 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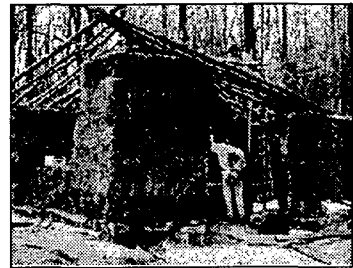
자연환경은 인간에게 있어서 생활의 기반임과 동시에 이를 자원으로 현명하게 보전, 이용함으로써 장기적,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해 주는 것이다. 대규모의 개발사업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기존 자연생태계의 질서를 변화시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의 순환에 불균형을 초래한다.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인공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화석 에너지가 투입되어 이에 따른 지구온난화, 대기 및 수질오염, 환경폐기물 발생 등에 의한 인간의 거주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순환을 이룬다(최일홍, 2000).

이제 인류는 무절제한 개발의 탐욕과 오만한 자연관에서 탈피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자세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1970년대 이후 독일과 북유럽의 국가들,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같은 나라들에서 시작된 자연환경의 보존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인류의 생활전반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함께 생태학(Ecology)의 개념이 도입되어, 미래학자들은 환경문제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최대의 현안이며, 21세기에는 전기, 전자, 정보시대에 이어 필연적으로 환경, 더 나아가 생태학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

생태마을이 추구하는 목표는 인간적인 척도, 소우주와 같이 다양한 기능을 갖춘 완벽한 마을, 그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자연세계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고 통합되도록 행동하고, 건전한 인간발달을 지지해주고, 영원한 미래에까지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생태마을에서 거주해왔다. 이는 과거의 대부분의 전통적인 농경마을은 자연과 조화롭게 더불어 살아가는 가장 좋은 생태마을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으며 아직도 전 세계의 절반정도는 전통적인 생태마을 사람처럼 살고 있다. 생태마을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이 전통마을에서 많은 점들을 본받고 있지만 다시 과거의 전통적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전통마을에서의 일은 너무 힘들고 기대수명은 짧고, 개인적 발달이나 교육의 기회가 적고, 특히 여성의 교육기회는 거의 없었으며, 삶의 다양성이 적었다. 더구나 이러한 마을과 자연환경의 조화는 인구밀도가 낮은 경우였으나 이



〈그림 11〉 북부지역에 적합한 혁신적이고, 건강한 주택으로 짚더미를 이용한 벽체



〈그림 12, 13〉 ETC에서 자연재료를 이용한 생태주택건축을 위한 교육



〈그림 14〉 물을 사용하지 않고 톱밥을 사용하는 생태적 화장실

제는 상황이 달라졌다(Gilman, 1991). 따라서 현재의 환경 상황과 인구밀도, 여건에 맞는 생태건축을 위한 새로운 기술적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망된다.

생태주택은 생태주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없이 실현하기 어려운데, 생태적 개념이란 인간의 존재를 인본주의적 관점이 아닌 우주의 질서 체계내에 존재하는 하나의 자연으로 해석하여 자연의 한 생물체로 보고(우경국, 2002), 생태주택도 자연의 고리 속에 존재하는 한 생물체로 인식함을 의미한다. 즉 생태주택을 우주의 한 고리를 차지하는 한 생물체로 보아 자연으로 아무런 찌꺼기 없이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생태주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적 생태건축 기준에서 볼 때, 목조가구식으로 된 우리 전

통건축은 흙과 나무와 돌로 이루어져 언제든지 자연으로 환원될 수 있었고, 자연의 일부인 사람의 인체를 건강하게 하는 숨쉬는 건축이었으며, 비와 바람, 햇빛을 십분 이용할 수 있고 부족하면 덧대어 내기가 손쉽기 때문이다(이규태, 1991).

한 지역의 지속가능성은 지속적으로 그 곳에서 생활하며, 주거환경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주자들에 의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들의 생활양식에 따라 환경의 보존 정도나 이웃간의 친교, 자원의 절약, 재생의 수준이 결정될 것이므로 거주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거주자들이 생태주거단지의 개발의 의미와 필요성, 생태지향적 환경과 전세계적인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이해하고 개별가정에서 개개인이 생태지향적 생활양식을 실현하는 것이 생태환경의 지속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곽인숙, 2000).

생태마을 교육센터(Ecovillage training center)에서는 생태적인 주거환경을 거주자 스스로 건축할 수 있도록 자연의 재료를 사용하여 집을 짓는 과정을 교육시키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저렴하고, 생태적인 해결책으로서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기농법 과정,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온수, 난방을 채택하고, 천막, 대나무, 둥근 목재, 짚더미를 이용한 건축과정을 교육시키고, 이외에도 조산원을 양성하고, 대체에너지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있다(Ecovillage Training Center,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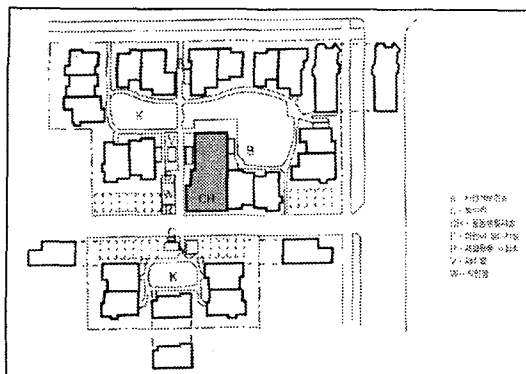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생태주택의 개념은 전통건축의 요소들을 현대건축에 적용시키면서 실천 과정에서는 전통건축과는 다른 현대과학의 힘을 빌린 기술들이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태양열 이용기술, 폐수정화기술, 빗물을 이용하는 기술, 흙과 같은 자연재료의 효과적 강화 기술 등을 개발하여 지속가능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다.

4) 더불어 사는 공동주거-코하우징(cohousing)

코하우징은 덴마크에서 1970년대에 시작되어 다른 여러 나라들에서 각기 그들의 현실에 맞게 적용되고 있다. 코하우징은 학자에 따라 코퍼러티브 하우스(cooperative housing), 협동주택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코하우징은 사람들의 현대적인 생활양식에 적합한 근린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새로운 주택 형태로서, 거주자의 개인적인 자치권과 공동 생활의 이익을 혼합한 주택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코하우징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 과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았던 촌락과 같은 공동체 생활을 현대화한 것이다. 과거의 공동체 구성원들은 한 마을에서 오랫동안 서로 알고 지냈기 때문에 서로의 가족과 성격, 재능, 병약 등 모든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책임을 요구하지만 대신에 안전과 소속감을 보장해준다. 코하우징은 개별가족의 프라이버시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동시에 타가족과의 협동생활을 통하여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실천적인 이익을 얻을수 있는 주거형태이다(McCamant and Durrett, 1994).

코하우징의 특성은 크게 4가지로 첫째, 주민들은 주거단지가 계획되는 전 과정에 참여하여 조직하는 일을 하게되며, 둘째, 의도적으로 이웃의 참여를 유도하는 디자인으로 계획한다. 셋째, 공동체를 통합하는 공동 시설을 확대하고 개인공간의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되도록 한다. 넷째, 관리나 운영등 일상적인 의사결정도 주민의 자주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한다(주거학연구회, 2000)

단지 배치에 있어 어린이들의 안전을 고려하고, 주차지역으로 오가며 이루어지는 거주자들간의 우연한 마주침도 중요한 사회적 기능을 한다. 자동차가 없는 보행도로와 중정은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고, 누구나가 편하고 창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단단한 표면재는 자전거를 타고 공놀이를 할 수 있는 반면, 잔디는 땀굴고 앉아서 쉴수 있다. 공동체 생활의 핵심 공간인 커먼하우스는 공동체 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그림 15> 코하우징의 대표적인 단지배치도
출처 : 주거학연구회(2000) 놀이공간



<그림 16> 코하우징의 안전한 어린이

커먼하우스를 지나야 하고, 개인주택이나 집 밖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며, 모든 개인주택으로부터 비슷한 거리에 있어야 한다. 커먼하우스에는 게시판의 알림사항이 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며, 커먼하우스에 들어가는 일이 일과의 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주거학연구회, 1999)

〈그림 15〉는 미국의 사우스사이드 파크 코하우징(Southside Park Cohousing)의 단지배치도로 공동생활공간으로 중앙에 커먼하우스를 배치하고, 채소밭, 작업장, 퇴비장, 재활용품 수집소 등을 계획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6〉은 단지내 공동광장에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타거나 잔디에 앉아서 놀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과 같이 주거문화의 흐름은 다양하며,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며, 협력하여 복합적인 방향으로 흐르는 것도 있다. 예를 들면 생태적인 마을을 지향하는 문화와 더불어 사는 공동생활을 함께 추구하는 Eco-village 또는 Eco-cohousing, 생태주택과 과학적 기술이 조화를 이룬 현대적 독일의 생태주택, 노인주택과 과학적 기술이 조화를 이룬 보편적 디자인의 부엌이나 치매노인을 위한 경보장치를 부착한 시설이나 주택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21세기의 주거문화는 지속적인 환경을 추구하고, 과학기술이 뒷받침하는 인간다운 주거공간을 구체화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21세기의 우리의 주거문화는?

제한된 분량으로 세계의 주거문화의 흐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시도였으나, 현재 진행중인 변화를 개략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이 연구의 의의를 두고자 합니다. 주거문화의 대체적인 흐름을 살펴보면 과연 우리 나라에서는 21세기의 변화하는 주변환경에 맞추어 바람직한 주거문화를 어떻게 형성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미래학자들이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든 비관적으로 보든 우리는 이미 정보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일상생활을 컴퓨터나 인터넷과 함께 하고 있으며, 노인의 인구는 고령화사회를 지나 고령사회를 향해 치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위에서 본 주거문화의 흐름은 우리에게도 예외일 수 없으며, 일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영향을 미치며, 각 나라의 전통문화와 상황에 따라 수정 적용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문화의 흐름에 맞춰 우리의 패러다임도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의 발달을 거부하기 보다는 받아들여 윤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여 인간성이 존중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이나 지체를 가진 사람들도 안전하고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적절한 과학적 기술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역시 핵가족화, 맞벌이부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노인돌보기가 용이한 일이 아니지만 요양시설에 노인을 보내는

것이 해결책은 될 수 없으므로 우리의 사회적 관습과 가치관에 적합한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아직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거나 노인들만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부양자녀들에게 노인의 수발을 모두 책임지울 수 없으므로 낮시간 동안의 돌봄을 지역사회에서 제공하여 신체적·정서적 부양부담을 줄여주고, 혼자 사는 노인들의 경우 동료집단과의 사회적 교류를 위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 고독과 소외감을 경감시켜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생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주거를 과거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일이며, 생태주택에 대한 개념과 방향을 확실하게 규명한 후에 전통주택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관을 오늘날의 사회적 상황과 특성에 맞추어 새로운 방법으로 적용시킬수 있는 과학적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코하우징의 사례는 삭막한 현대사회에서 이웃과 정을 나누고 살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아직 우리 나라의 제도적·법적인 측면과 맞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대안이나 제도적 수정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참고문헌

- 곽인숙(2000)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및 생태마을의 실현을 위한 거주자의 역할”, 대한가정학회지, 39(6),
- 김성완(1997) “미래주택실현을 위한 기술개발방향”, 건축(대한건축학회지), 41권3호, 48-50.
- 성준용(1999) “내가 체험한 지구촌 환경”, UNEP 소식지, 1999년 9~10월호(통권 7호)
- 우경국(2002), “탈 일본주의와 생태건축”, 전통건축의 생태문화적 연구와 실현, 29차 토지문화재단 세미나 자료집, 92-101.
- 유엔 인구국 노령화 보고서(2002) “노인인구, 2050년엔 어린이 추월” 국민일보, 2002/03/01.
- 이규태(1991), 재미있는 우리 집 이야기, 서울: 기린원
- 주거학연구회(1999) 『새로 쓰는 주거문화』, 교문사
- 주거학연구회(2000) 『더불어 사는 이웃-세계의 코하우징』, 교문사
- 최일홍(2000) 생태적 환경을 제고하기 위한 대단위 공동주택지 개발방향, 자연친화 주거단지 실현을 위한 심포지엄, 2000, 10월, 33-48.
-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자료실(2001) “(<http://www.elder.or.kr/main.asp> accessed 2002/01/08)
- Cluff, P.(1991) “The art or science of technology and its relationship to aging and disability”, [Independent Living Environments: for Seniors and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Canadian Ageing and Rehabilitation Product Development Corporation, Winnipeg,

Manitoba, Canada.

Ecovillage Training Center(2001),(<http://www.thefarm.org/ets/index.html> accessed 2001.06.11)

Gilman, R.(1991) "The Eco-village Challenge", One of the articles in Living Together(IC #29) Summer 1991, (<http://context.org/ICLIB/IC29/Gilman1.htm> accessed 2002.03.15)

<http://arch.hannam.ac.kr/~kih/week7.htm>

McCannant, K. & Durrett, C.(1994) Cohousing, Berkeley, CA: Ten Speed Press.

Smith, Ralph Lee(1988) Smart House: The Coming Revolution in Housing, G.P. Publishing, Columbia, Maryland, USA